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공산주의와아나키즘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공산주의와아나키즘

kr.theanarchistlibrary.org

이질문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는없을것이다. 대체로많은아나키스트들과사상가들은공산주의체제의모든장점을전적으로인정한다. 하지만사회적자유와개인의자유로운발전에대한심각한위험이이질문에서발견된다. 그런위험이실제로존재한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게다가이문제를다루기위해더욱중요다른질문, 즉개인과사회의상호관계일반에대해답해야한다.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에대한문제는이러한형식의사회적삶에대한아주널리알려진, 여러잘못된시각들때문에복잡해졌다. 많은경우어느정도가독교적이고수도원적인그리고어떤경우든엄격한중앙권력에종속된공산주의가공산주의의이름으로전파되었다. 19세기전반에공산주의를그런형태로선전하였고, 적지않은공동체에공산주의를그런형태로실현하였다. 이들공동체는가족을모델로택함으로써‘거대한공산주의가족’의창조를위해노력하였고, 이를위해무엇보다‘인간을개조하기’를원했다. 이결과, 노동외에도그들은긴밀한가족공동거주지, 현대문명에거리두기, 코뮌의독립, 공동체구성원각각의모든내적삶의세세한현상에대한‘형제들과자매들’의간섭을공동으로적용하였다.

그다음으로, 공산주의에대한논의에서, 300년혹은400년동안다양하게나타난소규모의단일공동체들과대량으로설립되어, 서로간에연합협정을체결하고있는공동체들을혼동하는경우가자주나타났다.(이연합협정은사회혁명의길로들어선사회에서만들어질수있다.)

이렇게공산주의에대한질문과공산주의사회에서개인적독립성의보장가능성에대한질문을제대로논의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질문들을분리하여관찰해야한다.

- ① 생산과수요. 즉어떤방식으로노동을공동으로기획할것인가그리고생활에필요한모든것을어떻게공동으로이용할것인가?
- ② 공동생활. 즉대가족모델에따라공동생활을실현하는것이필수적인가?
- ③ 개별적으로흩어져있는공동체들. 현재생기고있는공동체들의성격은어떠한가?
- ④ 그리고미래의시스템에속한 - 서로간에연합협정 (연방) 을체결하고있는 - 공동체들의성격은어떠한가?
- ⑤ 공동체시스템에서의개인적상황에대한문제. 공동체생활은불가피하게개인의억압을초래하는가?

19 세기의 거대한 지적 운동은 대체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바뵈프 (F.-N.Babeuf), 푸리에 (F.Fourier), 생시몽 (C.Saint-Simon), 로버트오언 (Robert Owen), 프루동 (P.-J.Proudhon) 으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추종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프랑스의 콩시데랑 (V.Considérant), 피에르루 (P.Leroux), 루이 블랑 (L.Blanc), 독일의 마르크스 (K.Marx), 엥겔스 (F.Engels), 셰프 레 (A.Schäffle), 러시아의 체르니셴스키 (Н.Черышевский), 바쿠닌 (М.Бакунин) 등, 이들은 현대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파하거나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얼마나 분명한 형태로 수립되었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사상은 사회주의의 두 주요 흐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아나키 (탈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서 타협 혹은 절충을 모색하는 몇몇의 중간적 형식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자본주의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부분 국가가 지배한다), 집산주의 (노동시간에 따라 화폐 형태로 노동시간제 임금에 모두에게 지불된다. 이 돈에는 루블 대신에 노동시간이 적혀 있다), 협동조합 (생산 그리고 소비 조합), 도시 사회주의 (도시 자치회라도 입한 반 사회주의적 제도)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동시에 순수 노동 환경에서 사회주의 창시자들, 특히 로버트오언의 사상은 거대한 노동 운동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 노동 운동은 자본에 대한 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투쟁을 목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수공업 조합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1864-1879 년 사이에 인터내셔널 혹은 국제 노동자 연합을 탄생시킨 이 운동은 연합한 수공업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 교류가 편해지는 정도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거대한, 지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은 세 가지 핵심적인 항목을 확립하였다. 지난 30 년 동안 이 세 항목은 사회적인 식속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 시간제 임금 시스템의 폐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고대 노예제도와 봉건적 농노제도의 현대적 형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② 생산을 위해 사회에 필수적인 것에 대한 개인적 소유의 폐지.

③ 경제적 노예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치적 노예화 형식으로부터, 즉 국가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해방.

사회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이 세 항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수표’ 혹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산주의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실적 개혁주의자’인 브루스¹가 말한 것처럼, “모두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즉 모든 노동자는 국가 혹은 도시 혹은 마을 공동체로부터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일시적 타협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체제에서 공산주의로 곧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보하여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것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공산주의다.

국가에 대해 말하자면, 강력한 국가 권력 그리고 심지어 독재의 열렬한 옹호자들의 일부도 지금 존재하는 계급들은 폐기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국가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단지 ‘우리’당이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운동에서 아나키당의 중요성을 절대로 과장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 사회주의 운동에서 다양한 당파들 사이의 견해차는 여러당이 채택한 혁명적 행동 수단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어느 당에 속하든 모든 사회주의 운동 사상가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최종 목표는 **자유로운 공산주의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모든 다른 것은 이 목표를 향한 과도기적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목표를 향한 과정에 나타나는 과도기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감지되는 미완의 과도기적 형식들, 그 경향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들 경향 중에서 특히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중 하나는, 사회의 삶이 복잡해짐에 따라 식량, 의복, 기계, 주거지 등의 생산에서 어느 정도가 개별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이제 농업과 산업은 상당히 복잡해져서 복잡해지고, 산업의 모든 분파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획득한 생산량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토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혹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탄광에서, 서로 다른 두 방직공장의 서로 다른 기계에서 혹은 같은 기계에서 서로 다른 면화를 대상으로 똑같이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이 생산하는 빵, 석탄, 옷감의 양은 서로 다를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종류의 산업이 발전할수록 단위 노동 임금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임금은 1 일 기준의 일급으로 대체된다.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기본 목표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은 가부장적, 종속적 가족 모델에 기초를 두었다.

공산주의는 경제 제도다. 그러한 것으로서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개인에게, 개인의 자기주도에 그리고 과거에 확립된 관습을 일정하고 화석화된 형태로 영원히 유지하려 할 때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 저항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할 것인지 - 를 결코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종속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것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 12 세기 도시들의 불완전한 공산주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 유럽을 갱생시키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의 탄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공산주의 즉 자유로운 공산주의와 종속적인 공산주의 중에서 전자만이 진보와 삶의 자질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 여가 덕분에, 복지를 보장할 가능성 덕분에 확대된, 시간이 줄어든 자유로운 노동 덕분에 확대된 - 개인의 자유는, 도시가스 혹은 도시수도의 공급 때문에 혹은 현대의 호텔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천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노동 시간 중에 당하는 강요 때문에 겪는 것보다, 결코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나키를 목적과 수단으로 갖는다면, 공산주의는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이 목적과 수단이 없을 때 공산주의는 개인의 노예화를 시도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¹ 역주 - 현실적 개혁주의자 (possibilist), 1880-20 세기 초에 있었던 프랑스 노동운동의 한 흐름으로, 이 운동의 지도자는 폴 브루스 (Paul Brousse, 1844-1912) 였다.

된다면, 더큰자유가확보될것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이것은전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우리각자앞에개인능력을모든방향으로확대할수있는가능성이활짝열리기때문이다. 과학, 예술, 창작, 발명등과같이전에 접근하기어려웠던영역이모든사람에게개방된다.

개인의자유가각각의공동체혹은공동체연합에서어느정도실현될것인가는전적으로, 공동체의토대위에서취하는관점에달려있다. 예를들어큰규모의종교공동체를알고있는데, 그곳의구성원들은내적감정상태의표현조차금지되었다. 불행때문에고통이얼굴에표현되는경우, ‘형제들’중하나가즉시그에게다가와이렇게말한다. “형제여, 슬픈가? 그래도즐거울얼굴표정을짓도록하게. 그렇지않으면다른형제와자매들에게아픔을주게되니까.”또우리는 9 명으로구성된영국공동체하나를알고있는데, 구성원중의하나가 1 명의대표와 4 개의위원회 - 그것은원예, 식량, 가사, 판매위원회이며, 위원회의장은전권을갖는다. - 정할것을요구하였다.(사회주의자들사이에도코치카레프들⁷이번식하고있다.) 물론‘권력을추구하는범죄적광신자(롬브르조 [C.Lombroso] 박사에게추천할만한특수한유형)’들이설립했거나, 그들로넘쳐나는공동체들도있다. 적지않은공동체들이“사회가개인을삼킨다.”는광신자들에의해설립되었다. 그러나공산주의는그런광신자들을생산하지않았다. 그들을만들어낸것은기본원리가극도로위계적인기독교와로마법, 즉국가와국가이론이었다. 국가주의적관점을갖는어떤공동체도회초리와도끼로무장한재판관과권력기관없이존재할수없으며, 사람들이그것과단절하지않는한, 그관점은실제로공산주의에위협과장애가될것이다. 그러나공산주의의기본원리는결코권위주의적인것이아니라, - 우리중각자가무엇을생산하고요구하는가를계산하지않고 - 생산과삶모두에필요한것을사회가모두소유하는것이더유익하고더좋다는단순한주장이다. 이기본개념은노예화가아니라, 해방과자유를지향한다.

우리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릴수있다.

지금까지공산주의실험은실패로끝났다. 이유는다음과같다.

코뮌에서는단순히생산과소비의경제적수단만을생각해야함에도불구하고, 실험은대부분종교적성격을갖고있었다.

실험은사회로부터, 사회적삶과투쟁으로부터소외되었다.

실험은연합을이루는대신에개별적이었다. 즉공동체들은지나치게작았다.

실험은 - 여가를전혀제공하지못할정도로 - 많은양의노동을구성원들에게요구하였고, 구성원들을완전히삼켜버리려하였다.

⁷ 역주 - 코치카레프는러시아작가고골의회곡『결혼』에등장하는관리다. 그는결혼을망설이는친구를설득하기위해, 결혼하면아이들을낳아키워많은관리들을만들어낼수있으니좋다고주장한다.

다른측면에서, 일급자체는평등지향성을갖는다. 지금의사회는물론지속적으로계급으로분화되고있고, 하루에적게일수록더많은임금을받는거대한‘주인’혹은부르주아계급이있다. 그리고노동자들사이에 4 개의큰등급이있다. 그안에서일당은아주다양하게지불된다. 이등급은여성, 농민, 잡역인부, 기술노동자다. 그러나서로다른임금을받는 4 개의노동자등급은고용주에의해착취당하는, 그리고더높은등급의노동자에의해차레로착취당하는 4 개의노동자등급을보여준다. 그것은여성, 남성, 농민, 공장노동자순이다. 지금은그렇다. 그러나사람들사이의평등이수립된사회에서, 고용주가노동자들의종속적상태를, 남성이여성의종속된상태를, 도시노동자가농민의종속된상태를악용하지않는사회에서계급구분은사라질것이다. 올바르게정리된사회에서땅과는노동자의하루는귀금속상인혹은교사의하루와 **동일한가치를갖는다**고정당하게말할수있다. 이것을근거로로버트오언과그의뒤를이어프루동은 **노동자수표**의도입을제안하고실험하기도하였다. 즉어떤것이든유익하고필요한것으로인정된생산에 5 시간참여한사람은누구든지‘5 시간’이라고표기된확인증을받는다. 그는이확인증을갖고공동매점에서임의의물건을, 즉식료품, 옷, 사치품을구입하거나방세, 철도요금등다른사람들의노동시간의양에해당하는비용을지불할수있다. 집산주의자들은미래의사회주의사회에서모든종류의노동임금지불방식으로이수표의도입을제안하고있다.

지금까지모든것의사회적인, 사회주의적인사용을확립하기위해많은방법들이고안되었다. 우리는지금이모든방법들에대해고찰하고있다. 그러나노동자수표를도입한미국의수천의농장을제외한다면, 우리는지금집산주의자들이선전하고있는로버트오언과프루동의사상이팔목할만한정도로발전되었다는사실을모르고있다. 75 년전오언이실험을개시한이후, 노동자수표가널리보급된곳은없다. 나도다른논문『빵의쟁취』에서어떤내부적모순들이이프로젝트의광범위한도입을방해하는지를제시한바있다.

반대로우리는사적인, 제한된, 불완전한혹은심지어완전한공산주의의경향을갖는, 많은가능한시도들을파악하고있다.

19 세기유럽과아메리카에서수백개의공산주의적공동체들이설립되었다. 지금도어느정도공산주의원리에따라생활하는, 약백여개의공동체가개별적으로우리에게알려져있다. 누군가세상에흩어져있는크고작은, 공산주의적인공동체와반공산주의적인공동체들에대해기록한다면, 매우흥미로운결과가나올것이다.

그리고 **사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한함에도불구하고부르주아사회도처에서공산주의원리에따라도입된사회화의노력들이눈에띄게증가하였다.** 이런시도들은개인들로구성된큰집단에의해서혹은도시전체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이것은자치혹은도시사회주의라불린다.)

부르주아사회에서이런경향을반영한것으로는호텔, 여객선, 스위스식‘숙박시설’이다. 일정한비용으로당신은대형여객선에서 10 종류혹은 15 종류의음식중에서원하는것을선택할기회를갖는다. 이때당신은하루에몇루블만을지불하는것으로충분하며, 어느누구도당신이얼마나많이먹는지계산하지않는다. 현재그런조직이국제적인규모로설립되기도하였다. 런던혹은파리에서출발하는경우, 당신은하루 2 루블 50 코페이카로전표를구입할수있다. 그리고이전표로당신은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산재된, 국제호텔연맹에가입된수백개의호텔로부터방과침대그리고식사를제공받는다.

부르주아는 **소비활동**에서개인의완전한독립성을보장해줌으로써이런유형의제한된공산주의가많은이익을가져올것이란것을잘이해하였다. 그들은하루혹은한달에일정액을내기만하면추가적인비용없이숙식을완전히해결할수있도록준비하였다. 사치품목은계약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면, 고급포도주, 호사스런방에대해서는별도의비용을지불해야한다. 그러나모든사람에게동일한비용으로, 여행객각자가공동식탁에서얼마나먹는지를계산하지않고도, 기본적인수요는충족되었다.

특히모든주민의수입이어느정도비슷한수준이고, 그때문에모두에게서평등하게보험료가징수되는마을에서의화재보험, 철도여행에서우발적으로일어나는사고를위한사고보험, 도난보험 (영국에서당신이 1 년에몇루블정도만내면, 보험회사는당신에도난당한모든것에대해, 당신자신의평가에따라, 1,000 루블까지당신에게보험금을지불한다. 이때어떤조사도, 경찰에신고하는일도없다. 보험사직원은당신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무엇때문에경찰에신고하세요? 어차피경찰은아무것도찾아내지못할걸요. 당신이받을돈은보험료, 부대비용을제하고도이익이남을것입니다.”) - 이모든것은지난 20 년간매우빠르게나타났던사적인공산주의혹은, 더정확히말해, 협동조합형식들이다.

이외에도학술조합이있다. 1 년에일정액수만내면당신은도서관, 연구에필요한공간, 박물관혹은동물원을사용할수있다. 이것은어떤백만장자도자기돈을들여마련할수없는것들이다. 당신에게방, 도서관, 학회그리고다른모든설비를제공하는클럽도있다. 생명보험, 개인적인여행사뿐만아니라영국의폴리테크닉여행사와같은교육기관이운영하는여행자조합, 혹은지금영국에서유행하는것으로, 1 주에 1 루블혹은십지어반루블만으로가족이 1 주일동안먹을수있는양의생선을어부에게서직접집으로배달해주는조합, 회원에게수천가지의서비스를제공하는자전거클럽등으로로들수있다.

한마디로우리는최근에발생하여매우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는수백개의제도를갖고있으며, 이제도들은매우광범위한소비영역을공산주의적으로활용하는원칙에도대를두고있다.

공산주의는개인의완전한자유에서시작하여모든사람의완전한노예화에이르기까지모든형식을포함한다. 반면에사회적삶의다른형식들은치우침없이다양한모습으로나타날수없다. 즉그것들중일부, 즉시민적평등과재산의평등을인정하지않는형식들은필연적으로누군가를다른사람의노예로만든다. 공산주의는모든수도사들이수도원장의의지에무조건복종하는수도원의형식으로나타날수있다. 그러나그것은완전히자유로운조합의형식으로도나타날수있다. 이조합에서각각의구성원은완전한독립성을유지하고, 구성원들이그것을원하고, 강요하지않아도, 각자의자유를수호하고모든방향으로확대하려고노력하는한, 그때까지조합은존재한다.

물론공산주의는위계적이고강제적일수있다. 경험을통해알수있듯이, 이러한경우공동체는곧붕괴될것이다. 혹공산주의는아나키즘적일수있다. 예를들어, 농노제도혹은집산주의에기반을두고있다면, 국가는숙명적으로강제적이될수밖에없다. 그렇지않은경우국가는국가가이를중단할것이다.

어떤다른공동생활형식보다뛰어난공산주의는 **경제적자유**를보장할수있다. 그것은명백히공산주의가 - 반대급부로하루에 10 혹은 9 혹은 심지어 8 시간대신에 4 혹은 5 시간이하의노동만을요구하면서도 - 사회구성원각자에게복지와심지어사치품에대한욕구의충족까지도완전하게보장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의의식적인삶이진행되는하루 16 시간중에서 (나머지 8 시간은취침을위해필요하다.) 각자에게 10 혹은 11 시간을여가로제공한다는것은이미인류가수천년동안이상으로여겼던수준으로개인의자유가확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오늘날우리의강력한생산수단을바탕으로이것은 **전적으로가능하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인간은쉽게매일 10 시간의여가를갖고, 이와함께복지를누릴수있다. 그리고이미그런여가는지금부르주아체제에존재하는가장어려운노동중하나로부터의해방을가능하게한다. 여가그자체가개인적자유의광범위한확대를위한구성요소가된다.

그다음에모든인간을평등하게여기는것, 인간에의한인간의지배와단절하는것, 이것은다시개인의자유를확대할수있게한다. 어떤다른공동생활형식도이정도의개인의자유를가능하게할수는없다. 그러나이것을성취하는것은첫발자국을내딛을때에만, 즉사회구성원각자의생존이보장되고, 어느누구도 - 사적인쉬운돈벌이를위해노동력을이용하려는 - 주인에게노동력과지혜를팔도록강요당하지않을때에만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이하는것처럼, 사회의계속적인발전과진보를위한첫도대는 **직업의다양성**을인정하는것이며, 이것은다시개인의자유확대를가능하게한다. 사회의구성원각자가여가시간에과학, 예술, 창작, 사회활동, 발명의영역에서하고싶은것을할수있다면, 노동시간에여러생산분과에서일할수있고, 교육자체가이런목적에따라실시

빈곤의섬에도, 어떤사회에서도, **그사회가어떤상태에있든지**그런자유로운계급은존재하지않는다.

인간은타인들의이해를언제나고려했고언제나고려할것이다. 그리고사람들사이에더욱더긴밀한상호관계가수립됨에따라, 이타인들스스로가자신들의소망과감정을더욱분명하게표현하고그것의충족을주장함에따라, 인간은그들의이해를더고려할것이다.

결국우리는자유에대해다음과같은것외에어떤다른정의도내릴수없다.

친구의비난을제외한다면, **자유는사회적형벌의두려움**, 신체적혹은기아의공포에서비롯된형벌혹은비난에대한두려움을 **자기행위의판단에개입시키지않고행동할가능성**이다.

자유에대한이보다더넓고동시에구체적인 (실질적인) 다른정의를내릴수있다고믿지않는다. 이런의미로자유를이해한다면, 우리는공산주의는모든개인적자유를축소하고심지어말살할수도있을물론 **인정해야한다**. (많은사회에서그렇게했다.) 그러나공산주의는 **또한**이자유를최대로 **확대할수있고**, 이런조건에서만즉개인적자유가확대될때에만공산주의는인간사회에서견고해질수있다.

모든것은 **우리가어떤관점을갖고공산주의에접근하는가**에달려있다. **공산주의적공동생활형식자체는절대로개인의중속을조건으로하지않는다**. 일정한공동생활형식속에서개인에게부여된크고작은공간은여러사회제도에도입된 **개인적자유필수성에대한관점**에의해정의된다. 단이개인이중속적인, 피라미드적인형식에놓여있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

앞에서언급한사항은모든형식의사회적혹은공동생활과관련해서정당성을갖는다. 두사람이한방으로이사하면, 그들의공동생활은한사람의다른사람에대한중속혹은둘사이에평등과자유관계수립이라는결과에이를수있다. 우리가둘이서채소밭을일구거나신문을발행하는경우에도같은일이생길것이다. 서로다른조합들그리고모든형태의사회생활에서도마찬가지이다. 그런식으로, 10, 11, 12 세기에, 그시대의여러도시에서자유롭고평등한사람들의공동체가창조되었다. 그러나 400 년이지난후, 바로이들공동체에서, 교회와로마법의가르침을받아사람들은독재를요구하였다. 도시의재판제도, 작업장의건설등등은전과같았다. 그러나그사이에여러도시에는로마법, 교황청, 국가의권리와같은개념들이발전되었고, 그러자중재재판소, 자유로운계약, 개인적자기주도와같은기본개념들은사라졌다. 이결과 17 세기, 18 세기중반의중부유럽에서노예적굴종이발생하였다.

더주의깊게고찰하면, 오늘날까지시험해본사회조직과제도들중에서공산주의가어떤것들보다개인의자유를더많이보장할수있다는것은 - 단자유, 아나키가공동체의기본이념이되는경우에 - 의심의여지가없다.

마지막으로또한우리는급속히증가하는공산주의적성격의도시제도를갖고있다. 도시는매년일정한비용으로, 각자가얼마나많은물을소비하는지엄밀하게계산하지않고도, 모두에게물, 가스, 조명을위한전기를마치노동력처럼공급한다. (이를위해맨체스터시는탄광을매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제도시는자신의항구와부두를, 거리에상관없이동일한교통비가적용되는전차를 (미국에서는수백걸음에서 30 베르스파까지동일한요금을낸다.), 공동목욕탕과세탁소를갖고있다. 마지막으로도시는자신들의공동거주지를건설하거나, 면양을사육하거나젖소농장을 (영국의토르케) 운영한다. 도시경제를공산주의적방향으로확대하려는시도들은매년증가하고, 그것의적용범위는확장될것이다.

II

물론이모든것은아직공산주의가아니며, 그것과는거리가멀다. 그러나이모든제도들의기본사상은그안에공산주의원리를일부포함한다. 즉 **일정금액을매년일정한횟수납부하면, 당신은일정정도욕구를충족할권리를갖는다**. 이욕구들중에서사치품은예외가된다. 지금당신은이를위하여전히돈을내고있지만, 노동으로지불할수있는날이곧올것이다. 기초는이미놓였다.

공산주의가되기에이제도들은아직부족한것이많다. 첫째, 노동이나나라돈으로지불한다는것이특히공산주의답지않다. 둘째, 적어도사기업에서소비자에게는업무관리에대한투표권이없다.

그러나또한다음과같은것을언급할필요가있다. 이제도의기본사상을올바로이해한다면, 사기업에라도이런 - 첫번째항목, 즉노동으로지불하는방식을적용한 - 공동체를 **지금**도입하는것은어렵지않을것이다. 500 데샤티나² 토지를예로들어보자. 이땅에정원에속한 4 분의 1 데샤티나규모의집 200 채를짓고, 나머지땅은평야, 채소밭그리고공원으로활용한다. 사업주는이집에사는각가정에그들이매일준비하는 50 가지음식중원하는것을선택하도록제공하거나 (미국호텔에서하는것처럼), 그는원하는가정에빵, 생고기, 채소, 차와커피를집에서요리할수있도록, 필요한만큼공급한다.(어부들은가정에생선을공급함으로써, 이방향으로일보를내딛고있다.) 물론난방은미국식으로중앙보일러와연결된관을통해뜨거운물을순환시킴으로서이루어진다. 이제도를운영하는사업주는이모든것을위한비용으로당신에게서매일일정액을돈으로

² 역주 - 미터법이전러시아에서사용된지적단위. 1,092 헥타르에해당한다.

받거나, 마을/호텔에 필요한 작업장 중 임의의 장소에서 매일 일정 시간 노동하게 함으로서 비용을 충당한다. 당신은 선택에 따라 하루에 몇 시간씩 들판에서 혹은 채소밭에서 혹은 부엌에서 혹은 방 청소일을 한다. 당신의 노동은 당신의 생활비로 계산된다. 그런 제도는 내일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진취적인 호텔 소유자도 이것을 실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³

거의 틀림없이 몇몇 독자들은, 많은 공동체들이 이 항목에서, 즉 노동일 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이 항목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적어도 많은 책이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공산주의적 공동체들이 붕괴할 때, 실패의 원인 은 전혀 일반 노동에 있지 않았다.

첫째, 그런 공동체들 거의 모두가 반종교적 열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공동체의 설립자들은 ‘인류의 선구자, 위대한 이상의 개척자’가 되어, 매우 까다롭고 ‘고귀하고’ 엄격한 도덕률들에 복종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갱생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간을, 모든 노동 시간을 공동체에 바치기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만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참 좋고, 멋지기도 하다. 새로운 사상은 그런 자기희생을 통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옛날은둔자들이 한 것처럼 행동함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와는 다른 것이 되도록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주·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 외에는 어떤 고상한 목적도 갖지 않는 공동체들이 최근에 비로소 주로 노동자·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다른 오류는, 그들은 반드시 **가족**을 모델로 삼아, ‘형제·자매들의 대가족’을 설립하기를 원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 집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평생 동안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에서의 협소한 공동 생활은 대체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피를 나눈 형제도 늘 한 집에서 혹은 한 방에서 함께 오래 살지는 않는다. 때문에 각자에게 최고의 자유를 그리고 각 가정의 내적인 삶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하는 대신, 모든 구성원에게 ‘대가족’의 삶을 부과한 것은 본질적으로

를 정당화하고 부활시키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처음에 온 힘을 다해 반대하던 국가 자체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 의지’에 대한 사유도 모든 이런 논의 아래 숨어 있다.

인간의 반반무의식적 행위는 젖혀두고, 우리 뇌의 일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식적 행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법, 종교와 형벌 시스템은 바로 의식적 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려 애쓴다. “나는 산책을 간다.”고 우리 생각은 말한다. “아니야, 난 친구와 약속이 있어.”라고 다른 생각이 말한다. 혹은 “난 일을 끝내기로 약속했어.” 혹은 “아내와 아이들 혼자서는 지루할 거야.” 혹은 마지막으로, “일하러 가지 않으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 마지막 판단에는 법에 대한 공포가 언급되어 있다. 처음 세 가지 판단은 인간의 개인적인 일과 자신의 사적인 습관 혹은 개인적 기호와 관련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 상태와 비자유 상태** 사이의 모든 차이가 존재한다. “법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만족을 거부한다.”고 말해야 하는 인간은 부자유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형벌 자체를 폐지하고, 형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아나키즘적 원리 위에 설 수 있으며, 그때 형벌의 공포 그리고 비난의 공포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이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정직의 습관으로부터도 (예를 들어 자신의 말에 충실한 습관으로부터), 자신의 기호로부터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원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소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로빈슨조차도 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가 통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고, 채소를 재배하거나 월동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노동에 얽매이게 되었다. 그가 늦잠을 자고 굴속에 누워 뒹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미 시작한 일을 하기 위해 나간다. 그에게 친구가 생긴 순간부터, 개 혹은 염소 몇 마리, 특히 그가 프라이데이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이미, 자유란 단어가 열띤 토론에서, 때로 공공 집회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게 되었다**.

그는 이미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는 이미 **타인의 이해**를 배려해야 했으며, 그는 - 아나키에 대한 논쟁에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놀라운 정도로 모순되게 묘사하곤 하는 - 그런 ‘완전한 개인주의자’가 아니었다. 로빈슨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생긴다면 아이는 누가 양육할 것인가, 그 자신인가 아니면 사회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그에게 가족과 채소밭이라도 생기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더 이상 - 가끔 자유로운 인간 유형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인 - ‘아무것도 알기 싫어’,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어떤 것이 아니다. 로

³ 이 글을 쓴 이후에 나는 미국을 다녀왔다. 부유한 대학생들을 위한 화려하고 큰 식당뿐만 아니라, 훨씬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아주 값싼 - 더크지만 덜 예술적인 건물 - 식당이 보스턴 근처의 캠브리지에 세워졌다. 많은 학생들이 식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일을 시킨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주 기꺼이 이 일을 한다. 그들은 이렇게 식대를 돈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으로 지불한다. 이런 식당들이 자신들의 농장을 운영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보스턴은 농산품과 과일의 큰 산지이고, 메사추세츠주의 - 현금 유통을 위해 중요한 - 과일과 채소 생산 중심지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언급했고, 그런 생각은 공감을 얻었다. 아마 학교 농장들은 빠르게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학들도 농장을 운영한다.

고 우리가 지적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단지 통계위원회를 만들기 원할 뿐이라고 보통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지금도 충분히 알려진 것처럼, 유일한 쓸모있는 통계는 개인 자체로부터 나온다. 단지 개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나이, 직업, 사회적 상태와 관련된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결산할 수 있다. 통계 수치가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발행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경우에, 오늘날 통계는 그런 식으로 수집된다. 우리의 '농가 현황'도 그런 식으로 지방 자치 회의 정직한 젊은 통계 조사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지원자들이 (학자와 통계 협회) 주민 각자에 주어지는 질문들만을 만든다. 통계 위원회의 역할은 인쇄된 질문지를 배포하고, 카드를 분류하고, 계산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국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국가에 어떤 다른 권력도 위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심으로 말한다면) 단순히 '멍에로운 퇴각'을 의미한다. 전 세기에 걸쳐, 국가주의자·사회주의자들 스스로도 절대로 국가를 조상 사용지를 나르는 배달부로, 최종 조사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원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국민 삶의 실질적 관리자**였다. 또한 급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자본주의자들은 30 여년 전에는 그토록 열렬히 선전했지만, 이제는 독재와 사회주의적 중앙 집권화에 덜 열광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들 중 누구도 베를린의 독일 **국민의회**에서 감자의 수요와 생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황당무계한 것들은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는 유토피아이다. 한때 옹호했던 사람들도 이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오래 전부터 다른 더 진지한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적인, 즉 자유롭고 무정부적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은 개인적 자유의 축소와 개인적 자기 주도에 대한 억압을 동반하지 않는단 말인가?

문제는, 자유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노예 상태와 종교적 억압의 시대에 상속된 수많은 거짓 표상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아의 위협을 받아 노동자들이 기업주와 체결한 계약은 그 자체가 자유라고 우리에게 설명한다. 모든 정당 의 정치꾼들은 강력한 국가에 예속된 시민들의 현재 상태를 자유라고 불려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애쓴다. 마지막으로 도덕론자들은, 심지어 밀과 그의 무수히 많은 추종자들처럼 가장 철저한 자들조차도 자유의 개념을, **모든 타인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어렵게 한 번 옛날부터 전해진 '권리'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밀의 정의는 철학자 스펜서, 많은 저술가들 그리고, 예를 들어, 심지어 터커 (B. Tucker) 와 같은 몇몇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이 재판, 형벌, 심지어 사형을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권리

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 두호보르파⁴ 신자들은 독립된 가옥에 살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생활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반공산주의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작은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여객선 혹은 감옥에서처럼 아주 좁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들은 서로를 견딜 수 없게 된다. (자신의 경험 혹은 난센 [Nansen] 과 그의 동료들을 상기해보라.) 작은 공동체 내에서 두 사람은 쉽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 세계와 멀리 떨어져 질수록 공동체는 쉽게 붕괴된다.

이 때문에 작은 공동체를 설립할 때, 몇 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더 오래 살아 남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은 어느 한 구성원의 노예와 같이 되거나 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가 오래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확신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0 개 혹은 20 개의 공동체가 계약을 통해 연합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특정한 이유로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기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공동체로 옮길 수 있고, 그의 자리는 다른 쪽에서 온 사람이 채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동체는 불화로 인해 몰락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재산은 한 구성원의, 가장 교활하고 잇속에 밝은 '형제'의 손으로 넘어간다. 나는 공산주의 공동체를 설립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협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였다. 이 의견은 이론에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특히 더 광범위한 조직의 부재로 인해 몇몇 공동체가 특정 '형제들'의 손으로 넘어간 영국에서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30 년간 대량으로 설립된 작은 공동체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몰락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다. 활동가에게 투쟁과 투쟁에의 해결기를 얻는 삶은 배부른 식사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회 생활의 격렬한 흐름 속에 잠기고, 투쟁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려는 욕구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니콜라이 차이콥스키가 내게 훌륭하게 지적한 것처럼, 젊은 이들은 18 세가 되면 공동체를 떠나야만 한다. 다른 세계에 섞이지 않고, 그 세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젊은 이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코뮌은 인적 없는 곳으로 떠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⁴ 역주 - 두호보르 (Духоборы, Doukhobors) 파. 성령 부정파 聖靈否定派, 영투사파 靈鬪士派, 영성과 靈性派라고도 한다. 두호보르의 의미는 '영혼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다. 17-18 세기에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으며, 환생을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과 교회 설립을 부정했다. 세속적 권위를 부정하여 납세, 병역 역시 거부하였으며, 때문에 러시아 제국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탄압 받았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조지아, 캐나다 등지에 존재한다.

그렇게 행동한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른 오류를 범했음을 나는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토지를 무상으로 혹은 매우 싼 값으로 매입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새로운 삶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도시 혹은 대로에서 떨어진 새 장소에서 주민 각자가 싸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경험이 말해주듯이 이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다. 그들이 싼 값에 땅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뉴캐슬 근처의 공동체는 물질적 인면에서 일반 농업이 아니라 **채소재배와 원예 농업에 종사할 때** (주로 온실 재배로) 훨씬 잘 그리고 빨리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게다가 대도시와 인접해 있을 때, 공동체는 과일과 채소의 판로를 확보하고도 지임 대료를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채소와 원예 농업은 일반 농업, 나아가 황무지 개간보다 훨씬 수월하게 도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의 언제나 우두머리를 가지려는 소망이 공동체 붕괴의 -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 이유가 되었다. 행정 조직을 최소화 하거나 전혀 갖지 않았던 공동체들은 (북미의 이스카리아처럼) 다른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되었다. (35 년간) 이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의 잔혹함은 언제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배와 권력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작은 공동체에서 권력 때문에 생긴 다툼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붕괴로 귀결된다. 대도시에서 우리는 정치 적적 대자들과 나란히 살아가야 한다. 그들과 지속적으로 마주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순간 마주쳐야 하는 작은 가족 내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권력 때문에 생긴 정치 적 다툼과 음모는 이제 작업장, 채소밭, 외양간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모이는 공간으로 옮겨가고 삶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워진 공동체들이 붕괴된 주요 원인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공산주의적 노동 일반 그리고 공동체 생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언제나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상업적인 기업에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지난 100 년 동안 세워진 공동체들 중 어느 것과 비교해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드물게 기업의 몇몇 부문에서 공산주의적 원칙에 따른 산업 생산과 같은 정도의 이익을 내기도 하였다. 멘토파제 분소 혹은 방직 공장 혹은 벌목 혹은 과실 수재배가 그러하다. 초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던 토지가 몇 년 후에는 10 배 혹은 심지어 100 배의 가치를 갖게 만든 공동체의 이름을 수백 개는 거론할 수 있다.

경영상의 오류는 다른 모든 곳에서와 같이 물론 공산주의 공동체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계에서 새 기업 100 개 중 매년 60-80 개가 파산한다. 새로 설립된 기업 5 개 중에서 3 개 내지 4 개가 설립 후 5 년 안에 파산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지를 발휘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르주아 신문들은 아나키스트들에게 고립된 섬을 주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그곳에 코뮌을 설립하게 하라고 충고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다만, 이

섬이 프랑스의 섬이어야 하며 (파리가 위치한 일-드-프랑스⁵), 사회적 부 중에서 - 사람 수에 따라 계산하여 - 우리 몫을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일-드-프랑스도, 사회적 부 중에서 우리 몫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사회 혁명의 방법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71 년의⁶ 파리와 바르셀로나는 이미 그런 상태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으며, 그 이후 공산주의 적 시각이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도시가 공산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그것을 이웃 도시들에 확산시키지 않으면, 향후에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노동자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삶을 즉시 상당히 큰 지역에,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주의 자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하이오 혹은 아이다호와 같은 미국의 한 주 전체에도 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옳다.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첫 발자국은 결코 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큰 산업 그리고 농업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없는 도시는 생존할 수 없다.

III

국가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증명해야 했고, 여기서 다시 우리의 논거들을 열거하지는 않겠다. 가장 훌륭한 증명은 국가주의자들 자신도, 즉 사회주의 **국가**의 옹호자들도 국가의 강제 위에 건설된 공산주의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쟁취에 매우 몰두하고 있어서, - 모든 시민들이 국가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체제, 즉 **국가 자본주의**의 실현과 양립할 수 없는 - 사회주의 국가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면 그들은 화를 낸다. 그러나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의 형식을 실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지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임박한 사회 혁명**의 가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일부를 장악하려 하고, 미래의 방향을 미래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모든 것을 미래에 위임해 버린다.

미래 사회를 설계하려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들이 국가 원리를 발전 시킴으로서 인류가 쟁취한 크지 않은 개인적 자유를 밑으로부터 훼손시킨다

⁵ 역주 - 일드프랑스 (Île-de-France). 프랑스 26 개 행정 구역 중 하나로, 현재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위치해 있다.

⁶ 역주 - 1871 년의 파리 코뮌을 의미한다.